

“스팍쌓기 보다, 불법이 좋아”

27년 청년불자 양성의 요람, 부산대 불교동아리 ‘불교바라밀’



부산대 불교동아리 '불교바라밀'이 3월 10일 신입회원과 첫 대면식을 가졌다.

부산대 불교동아리 '불교바라밀' 회원들의 표정이 들떠 보인다. 2011학년도 신입회원 모집공고 후 첫 대면식이 있던 날 3월 10일 동아리방은 봄기운이 가득하다. 며칠 전 동아리 거리홍보에서 신입생들로 부터 유난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오는 일회하는 신입생 인원은 고작 5명.

불교바라밀(회장 이희범)은 선후배간 끈끈한 유대감으로 발전해왔다. 불교바라밀은 27번째 명맥을 이어온 뿌리 깊은 동아리다. '불교바라밀' 졸업생들은 자연스럽게 동문회인 '한사랑회'에 가입된다. 동문회는 월 정기모임과 후배들을 위한 후원 기금을 마련, 멘토 역할까지도 하고 있지

만 신입생 가입율은 저조하지만 하다.

이희범 회장은 최근 동아리에 가입하는 학생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 스팍 쌓기에 몰두하는 분위기를 주요인으로 봤다. 이 회장은 “학술동아리나 영어 등 취업과 관계된 동아리가 아니면 인기가 없는 편”이라며 “종교 동아리는 신입생 모집기간 보다는 학기 중에 재학생들이 알뜰알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대 내 종교동아리는 가톨릭 1개, 기독교 2개, 중산도 1개, 원불교 1개, 정교회 1개다. 이들 동아리도 불교바라밀과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바라밀 직원들은 지도법사 도일 스님의 지도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흥법사(주지 심산) 국제부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문화행사에서 통역 및 안내 봉사활동을 한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인근 사찰에서 등을 달고 하루 종일 사찰의 부처님 일순을 돕는다.

김태운(26·경영학과) 군은 “매주 동아리방에서 법회를 보고나면 혼란스러운 마

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 심적으로 많은 힘이 된다”며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남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법을 배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조동현(23·항공우주공학과) 군은 “학과 친구들은 태권도부와 축구부, 밴드부와 사 진부 등 활동적인 동아리에 많이 가입해 있는데, 불교 동아리라고 하면 특이해 한다. 그때마다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도 하고 템플스테이에도 참가하는 등 아주 즐겁다고 알려준다”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지도법사 도일 스님(보리암 주지)은 “우리 사회지도층에 불자가 부족한 만큼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훌륭한 재가불자가 됐으면 좋겠다”며 “자기 이익만 차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람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다운 삶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불교에 입문한 27년 전 선배들처럼, 불교바라밀 학생들 역시 청년다운 삶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기 위해 오늘도 씩 없이 정진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인형으로 아이유 ‘좋은날’ 부르면



인형극 동아리 '보리동이'는 4월부터 '화가와 눈썹' 정기공연을 실시한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인형극동아리 '보리동이'

“종교를 초월해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내일을 꿈꾸도록 돕겠습니다.”

부산경남지역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이 인형극을 통한 포교활동을 위해 인형극 동아리를 창단했다. '보리동이' (회장 문진옥)는 대한불교교사대학 내 유일한 동아리다. 깨달음을 찾는 아이라는 뜻으로, 현재 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창립 당시 '보리동이'는 옛 이름 '여우벌'로 불렸다. '여우벌'은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인형극단으로,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과 불교교사대학 교사들이 지적 나눔을 갖고자 결성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잦은 타지방 진출 등으로 유지가 어렵게 되자, 불교교사대학 중심으로 극단을 만들어 '보리동이'로 탈바꿈했다.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은 이들은 창단 첫 해 순수 창작극으로 동원에서 주최하는 제5회 언어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제6회 언어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리동이'의 인형극은 <백유경>을 소재로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각색 및 극본 작업을 한다. 작품의 소재를 선정하고 대본 집필, BGM 음악선곡, 녹음, 소품 제작까지 8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나서 다시 2-3개월간 연기 연습을 거쳐야 비로소 한 편의 인형극이 무대에 오른다.

최근 준비 중인 '관대와 화가' 극본

에는 '애꾸눈 임금님'이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다운받아 보고, 일을 못하는 신하에게는 2PM 매니저를 하라거나, "요즘엔 카라가 대세"라는 대사를 넣어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신하가 가수 아이유의 노래 '좋은 날'의 고음을 따라 부르는 장면을 넣는다.

문진옥 회장은 “대비가 완성되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시그널로 사용할 음악을 설문조사하는데, 동요를 아는 어린이들이 한명도 없어 당황스러웠다. 이후 어린이들이 인형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이들가수들의 음악도 적절히 넣고 있다”고 말했다.

연출 이지연 씨는 “게다가 기존의 작품이 아닌 순수 창작극을 기획 단계부터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 마추어동아리에서 모두 소화해야한다. 또 동아리 회원 대부분은 학교 및 어린이법회의 지도교사로, 집안일을 병행하는 어머니들이라 시간을 내고 인형극 연습을 하려다보니 쉽지 않은 않지만 보람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씨는 “이런 가벼운 웃음 포인트는 외도로 웃음거리를 삼지 말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자는 주제를 담았다”며 “인형극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한 방법이고, 아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동이'는 4월부터 부산 광복동 소재 용두산소극장(나다문화사업단)에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화가와 눈썹'의 정기공연을 시작한다. 인형극과 함께 집중력을 기르는 명상 프로그램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010-9879-7033 용두산소극장

박지원 기자

1만 부산불교도 5대결사 한마음

범어사 등 부산 불교계 5대결사 운영위 구성

1만 여 부산 불교도가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 5대 결사에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의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따른 불교계의 5대 결사 운동이 불심도시 부산에서도 개최됐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불)와 함께 3월 17일 오후 2시 부산KBS홀에서 민족문화수호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로 불교 본연의 모습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한 '수행결사'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문화결사' △생명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명결사' △사찰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티끌이 되도록 하는 '나눔결사' △종교간 평화와 남북,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결사' 등 총 5가지 결사 조항을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 해 정부와 한나라당

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전박한 인식을 보여줬다. 우리 삶에 습관처럼 길들여진 부정적 관행과 타성을 자성해야한다”며 부산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부산불자들이 결사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를 마치고 정여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한 5대 결사 계획을 발표했다.

스님은 “범어사 내 50인의 스님을 중심으로 5대 결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말사간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스님이 직접 치료하는 '관자재병원'

재활요양전문병원으로는 부산지역 불교계 최초

부산에 불교 재활전문 요양병원이 3월 말 부산 남산동에 문을 연다. 부산 불교계 최초의 일이다. 재활전문 요양병원 관자재병원(이사장 원광, 정수사 주지)은 3월 22일부터 본격 진료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등 6개 과목으로, 기존의 장기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뿐 아니라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이용가능하다.

관자재병원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5-16번지 일원의 연건평 3500㎡, 지하 1층, 지상 8층에 180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고, 환자 1명당 의료진 2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의·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100여의 의료진이 환자를 보호한다.

특히 의료관련 자격을 소지한 비구니 스님을 실제 간호조무사로 채용해 불자 환자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를 예정이다. 출가수행자가 직접 아픈 환자들에게 직접 주사를 놓고 돌보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사장 원광 스님은 “현재 요양병원이거나 요양시설 대부분은 이웃 종교법원에서 운영하고, 불자 역시 임종을 앞두고 개종하는 경우가 빈번해 마음이 아팠다”며 “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불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치유해주고, 더불어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51)516-9898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흥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집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법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김장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북관방, 김장소프렌드, 핸드폰점, 보안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신세계로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 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

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일이 없는 오늘날도 안병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날리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툴 밑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문의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